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보수)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 울 02.3705.6000	울 산 052.247.3520	천 안 041.575.0961
강 릉 033.651.1385	대 구 053.652.0070	서 천 041.951.6400	원 주 033.742.6090	청 주 043.265.3700
거 제 055.682.4950	대 전 042.254.3035	성 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 천 033.254.4878
경 주 054.772.8141	동 해 033.531.3007	세 종 041.865.0872	익 산 063.857.8910	충 주 043.848.3240
고 양 031.919.4040	마	속 초 033.635.3523	인 천 032.424.0524	타
광 명 02.895.1966	마 산 055.246.8746	수 원 031.252.5111	자	통 영 055.646.2547
광 양 061.762.0012	목 포 061.242.1611	순 천 061.744.7990	전 주 063.224.5501	파
광 주 062.524.3511	바	아	제 주 064.711.8322	파 주 031.945.5998
김 해 055.332.6000	부 산 051.441.2221	안 동 054.854.5482	제 천 043.646.6009	평 택 031.651.7701
나	부 천 032.668.9700	안 산 031.483.6536	진 주 055.755.3463	포 향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 양 031.455.2700	진 해 055.542.0020	하
남 원 063.632.7002	사 천 055.833.2344	양 산 055.367.1144	차	하 남 031.793.7771
논 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 수 061.654.2161	창 원 055.283.9488	

※ 조치원Y가 세종Y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2012 Vol. 490 05 May
YWCA



순례의 길, 비움의 길



글 | 신희운(연합회 부회장)

얼마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멀고 힘든 나그네 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나사렛을 떠나 어부였던 제자들과 이 마을 저 마을, 산과 들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 예수님은 진정 '머리 돌 곳조차 없는' 혈혈단신의 젊은 순례자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느끼는 그 순간, 제 마음의 울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지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고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정점으로 기념품점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명소마다 관광객의 줄은 끝이 없었고 기다림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Y가 순례의 길을 가자고 결단한 시점이어서인지 더욱 그 물음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90년의 역사 속에 우리들은 참 많은 것을 이루어 왔고 가지 무성한 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Y만한 여성운동체가 어디있냐고 자부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순례' 라는 주제로 한 템포 천천히 걷기를 시작한 것일까요? 몸집이 커지다보니 생명의 기운이 빠져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례길에서 한 목사님은 순례의 길을 가기위해서 버려야 할 것 네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길들여진 습관에 익숙해지는 것, 둘째 과거 업적에 대한 도취, 셋째 이미 획득한 소유에 대한 집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렇습니다. 순례길은 버려야만 떠날 수 있습니다. 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

부심의 거의 전부라고 여길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WCA 100주년을 향한 순례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비워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일도, 우리 사회도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회원Y들도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대책도 없어 보이고 희망도 없는 것 같다고 개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순례' 길은 바로 지금 우리의 희망이며 대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만과 욕심을 과감하게 비웁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광야에서 인도하신 '생명의바람' 을 그 비운 자리에 담고 순례의 길로 가야 합니다. 험난하고 앞날이 걱정될지라도 우리는 전진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소외되고 낮은 곳을 찾아 정의와 평화의 씨앗을 심고, 이웃과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는 창의적 기독교 운동체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냐고요? YWCA 90주년을 맞이한 바로 나, 당신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전국의 9만여 회원들이 세상을 살리는 신나는 여성회원이 되도록, 우리의 순례길에 동행자로 함께 나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례길에 동행하심을 굳게 믿으며, 문정희 시인의 기도도로 이찬란한 오월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 저기 홀로 서서 제자리 지키는 나무들처럼... 기도는 땅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 저기 흙속에 입술 내밀고 일어서는 초록들처럼... 땅에다 이마를 껴히히 묻고 숨을 죽인 바위들처럼... 기도는 간절한 발걸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깊고 편안한 곳으로 걸어가는 것..."



Cover Story

YWCA 평화순례, 서울YWCA 90주년 걷기축제

광주Y에서 시작된 한국YWCA 평화순례가 서울Y로 이어졌다. 싱그러운 5월의 토요일 아침, 걷기축제에 참가한 Y청소년 회원들이 YWCA 평화가 'go 100년'을 향하여 유유히 흐르기를 소망하며 한껏 포즈를 취하고 있다.

Contents

2012 Vol.490 05

- 03 90주년 특별기고 ● 순례의 길, 비움의 길 | 신희운
- 04 YWCA 역사읽기 ● YWCA 회관이야기 | 김현자
- 06 YWCA 90주년 지금 이순간 ● ① 광주에서 서울로 이어진 YWCA 평화
● ② 전국회원대회 워크숍
- 10 Y-정책 | Y돌봄 연구소 ●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이해 | 표대중
- 13 | Y돌봄 현장 ● 돌봄으로 잉태하는 살림 현장
- 15 YWCA와 사회 ● YWCA 복지사업단의 10년을 돌아보고, 내다보며
- 16 체험, Y현장 ● 성매매피해여성일반지원시설 울산YWCA 씨밀레 | 김도희
- 18 조명 : Y가 만난 Y사람들 ● 행복마을을 만드는 미술사, 한종훈 사회복지사
- 20 새로 시작하는 YWCA 청소년 운동
- 21 북한을 만나다 ● 동아시아 정세와 '북한문제' | 이기호
- 23 평화시선 ● 뮤지컬 「언틸 더 데이」 | 김은주
- 24 월레아침기도회 ● 창조세계의 보전과 핵 없는 세상 | 장윤재
- 25 연합회 소식
- 26 2012 YWCA 회원증모워크숍 ● 회원은 YWCA '존재의 힘'
- 27 회원YWCA 소식

제48권 제4호 통권 490호 2012년 5월 31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편집인 유성희 편집장 차경애 편집위원 김진형·백수경·윤혜원·이경순·이은영 편집 박은실·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주)세이미디어(02-730-0746) 구독신청안내 구독신청요금 1만 원(1년분)을 내시면 맥으로 보내드립니다. 농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송금 후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입금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YWCA 회관이야기

글 | 김현재(연합회 명예연합위원)



명동에 자리잡은 YWCA회관

현재 연합회 건물과 서울Y 회관이 들어서 있는 명동 한복판의 금싸라기 같은 1,200평의 땅은 초창기 Y지도자들의 강인한 인내력과 집념이 일궈낸 업적이다.

해방 후 힘든 시기를 보내던 YWCA는 1947년 혜성처럼 나타난 박에스터 선생을 맞이하면서 일대 전환기를 만난다. 그 전에 김성실, 신의경 씨 등 YWCA 지도자들은 당시 군사령관인 러취 장군, 군정 고문인 언더우드 씨, 보건사회부 고문 슈버커 씨를 찾아가 YWCA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회관 확보 문제를 도와줄 것을 이미 요청해 놓았다. 그 결과 명동 1가 1번지에 있는 적산가옥 두 채를 YWCA연합회와 서울YWCA 회관으로 명도 받도록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그때 연합회로 쓸 건물에는 이미 모자료가 들어와 차지하고 있었고 서울YWCA가 들어갈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이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회관을 찾아가는 YWCA 이사와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팔매질을 하였다. 몽둥이를 휘두르는가 하면 머리채를 잡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1년 가까이 많은 곤욕을 치르면서야 겨우 회관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회관이라고 해야 낡은 2층 목조건물 한 채가 있고 서울YWCA 자리에 학교 교실 모양의 길다란 건물

이 불품없이 놓여 있었다.

힘들게 찾은 연합회의 건물을 말끔히 수리하고 사무실, 회의실 등을 정리하고 연합회 간판을 걸고 보니 아담한 회관이 되었다. 당시 박에스터 고문총무는 건물 2층 숙소에서 살았다. 그의 방 내부는 특유의 솜씨로 아기자기 꾸며졌지만 천장에서는 쥐들이 밤낮없이 운동회를 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선생의 후임으로 온 루이드라는 미국인 고문은 한 달도 못살고 반도호텔(지금의 롯데호텔)로 옮겨 그곳에서 Y로 출퇴근을 했다. 박 선생은 낙후되고 퇴락한 Y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세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해방직후의 빈곤과 혼란 상태에 있는 한국에서 여성단체의 새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YWCA가 건축모금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YWCA나 세계YWCA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박 선생은 매일 건물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모금에 대해 회원들을 교육하고 설득하며 벽돌 한 장이라도 기부할 것을 호소했다. 모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회에서 더구나 전란을 겪은 빈곤사회에서 그것은 거의 무모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런데 이때에 가장 성공적인 모금활동은 극장협회의 협력을 얻은 일이다. 일정기간 동안 입장료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팔게 하여 그

이익금을 YWCA에 주는 조건이었다.

또한 미국YWCA 국제부 위원이었던 메리 록펠러(Mary Rockefeller) 여사가 자신의 집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록펠러 재단에 박 선생의 면담을 알선하였다. 그 결과 5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건축가인 아이엠 페이(I.M.Pei)는 서울YWCA 설계도를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을 가해 줌으로써 건축비가 많이 절감되게 해주었다. 이와 같이 해서 1958년에 기공한 새 회관은 지하실 포함 4층 연건평 735평의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명동 한복판에 우뚝 서게 되었다. 건물을 둘러본 사람들은 서울장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 지어진 건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연합회 회관과 버들캠핑장

명동성당을 마주보고 서있는 7층 연합회 건물을 들어서면 현관 밖의 왼쪽 붉은 벽돌 벽에 새겨진 3인의 여인상이 눈길을 끈다. 이것은 이 회관을 건립할 때 여류 조각가 김정숙 씨(서울YWCA 이사)가 조각한 것으로 3인의 여인상은 한국YWCA 창설자 김활란, 유각경, 김필례를 상징한다. 또한 그들의 손에 든 비파, 향유, 횃불은 YWCA의 상징인 삼각형의 지(智), 덕(德), 체(體)를 나타낸다.

목조 건물이었던 연합회 회관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아무리 개조를 하고 수리를 해도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기가 불가능하였다. 1966년 2월 연합회 실행위원회에서 연합회 회관 건축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었고 창립 45주년 기념사업으로 연합회 회관과 청소년 캠프 건립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연합회 건축을하기로 결정했을 때 방안의 모든 사람의 시선은 일제히 박에스터 선생으로 향했다.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가 잠시 회의장을 감돌았다. 박 선생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의 뜻이 그러시다면 진행시켜 봅시다.” 박수가 터져나왔으나 선생의 표정은 심각했다. 아마도 서울Y건물을 지을 때 고생했던 일을 상기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뜻밖의 말이 선생의 입에서 나왔다. “이왕 연합회

건물을 짓는다면 캠프장도 같이 지으면 좋겠어요. YWCA에 캠프장은 꼭 필요하니까요. 모금을 자주 할 수 없지 않아요.” 회의장에서는 환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전 회원이 모금에 발 벗고 나섰다. 각자 소속 교회에서도 후원금을 받아왔다. 박에스터 선생은 세계YWCA와 미국YWCA뿐만 아니라 독지가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박 선생의 큰 장기 중 하나는 편지를 잘 쓰는 일이다. 그의 편지는 문장이 유려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성과 친근감,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었다. 누구나 그의 편지를 받으면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의 진정성과 간절함이 있었다. 돈을 받고 감사 편지를 보내면 또 감동해서 다시 수표를 보내오는 일도 많았다.

박 선생은 나 자신을 위해서 손을 벌린다면 창피한 일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박 선생과 함께 늘 돈을 받으러 다닌 분은 회계인 이마리아 선생(나은실 후원회 이사의 어머니)이었다. 이 선생은 자신을 위해서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마디도 안하고 살았는데 Y를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몇 번이나 머리를 숙였다고 했다. 버들캠핑장도 박 선생의 작품이다. 우연한 기회에 유일한 유한양행 회장이 땅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새벽같이 자택으로 찾아가 지금의 대지를 기증받았다. 1970년 캠프장은 토지 기증자 유일한 씨의 성을 따서 <버들캠핑장>으로 봉헌되었다. 숙소를 짓는 데는 독일 개신교 개발사업지원본부(EZEF)의 지원을 받아 독일소녀의 이름을 따서 잉거, 우테, 피트라라고 명명했다.

보통 ‘YWCA’ 라고 하면 건물을 떠올린다. ‘아 명동에 있는 그 건물!’ 그러나 YWCA는 건물이 아니다. YWCA는 사람이다.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YWCA를 만든다. 그렇다 하더라도 YWCA에 있어 건물은 존재의 필수 요건이다. 회원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을 때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서울로 이어진 YWCA 평화

한국YWCA는 창립 90주년을 기념하여 남한을 가로지르는 평화순례를 시작하였다. 한국YWCA 평화순례는 지난 90년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향하여 순례의 여정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YWCA 평화순례는 지난 4월 28일 광주YWCA를 시작으로 5월 19일 서울YWCA로 이어졌다.



광주YWCA 광주천 살리기 시민걷기대회

4월28일, 광주YWCA 창립90주년을 기념하여 광주천 살리기를 위한 시민 걷기대회가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광주 천변로에서 개최됐다. 이번 걷기대회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시민들의 참가비가 북한어린이돕기 분유보내기 운동에 모금액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은 북한에 걸어들 수 없는 없지만 평화순례를 통하여 YWCA 평화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약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살림과 평화, 나눔의 순례를 선포하였다. 최양남 회장의 개회사와 연합회 차경애 회장의 축사, 박주선 의원과 이병록 광주 행정부시장, 최영호 남구청장의 축사가 있었다. 박주선 의원은 “YWCA 북한어린이 돕기 평화운동은 이념을 넘어 지고한 사랑이어서 돋보인다”고 격려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광주천을 걸으며 환경살리기 EM 흙공 던지기를 하였고, 쓰레기 수거도 하였다. 체험부스에서는 EM 흙공 만들기,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 걷기와 체험의 기쁨이 어우러진 활동이었다. 걷기를 마친 후, 광주Y 최양남 회장이 연합회 차경애 회장에게 평화순례를 이어가는 의미로 품보드를 전달하였다. 이 품보드는 평화현장의 중심인 광주Y에서 서울로, 7월에는 강릉으로 전달된다. 평화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멋진 날을 기대한다.



평화와 나눔의 발자취 따라, 서울YWCA 90주년 걷기축제

광주에서 시작한 평화순례가 서울YWCA 90주년 걷기축제로 이어졌다. ‘평화와 나눔의 발자취 따라’를 주제로 한 서울YWCA 90주년 걷기축제가 5월 19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월드컵 평화의 공원 내 유니세프광장에서 열렸다. 걷기축제는 식전 체험행사로 페이스페인팅, 재활용 물병 화초심기, 풍선아트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코너가 준비되었다. 9시 개회식과 함께 신나는 준비체조를 한 후,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난지순환길을 걷기 시작했다. 3가지 코스에는 이벤트가 준비되었는데, 서울YWCA 목적문 외우기, 기념 포토존, 서울YWCA와 하이파이브로 걷기 코스로 중간중간에 재미를 더했다. 특히 이날 다문화가족들이 참석하여 다양성과 조화를 추구하는 YWCA 평화순례에 더욱 의미를 더하였다. 약 1,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평화순례를 마치고 서울Y이연배 회장이 연합회에 품보드를 전달하였다. 평화의 물결이 서부지역을 거쳐 서울에 다다랐다. 이 품보드는 7월 강원도 지역YWCA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평화순례를 통해 “YWCA는 ‘다르다’는 이유로 가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 억압,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합니다”, “Peace is our Hope”라는 메시지가 남한을 넘어 북한 땅에 까지 전달될 날을 소망한다.



로고설명

생명을 살리는 정신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더불어 사는 운동을 표현했으며, “여성이 만드는 평화로운 세상”을 주제로 운동을 펼치는 YWCA의 운동 로고이다. 국민대학교 시작디자인학과 윤호섭 명예교수의 작품이다.

생명살림과 평화, 나눔의 순례

● **강정임**(광주YWCA 증경회장)
쾌청한 봄날, 4월28일 광주YWCA 90주년 기념 ‘광주천 살리기’ 및 ‘북한어린이돕기 분유보내기’ 걷기대회가 1천여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첫 순례의 길을 시작 했다. 살림과 평화, 돌봄의 긴 역사를 마음에 품은 회원들은 백년을 향한 또 하나의 소망의 첫발을 댄 것이다. 새로운 소망을 기원하며 시작한 첫 순례 길은 희망과 사랑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나이트를 그려 갈 것을 마음에 새기게 했다. ‘생명살림과 평화, 나눔의 순례’라는 우리들의 캐치프레이즈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의 표정엔 기쁨과 소망으로 벅차 있음이 보였다. 이날은 순례의 시작이었다. 이날 EM 흙공던지기를 하며 셋강을 살리는 이를 지속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백년엔 큰 강을 살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그 날을 기대하며 꿈꾸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의 꿈이 꼭 이루어 질 줄 믿으며, 확신하며! 아름답고 맑은 셋강의 풍경을 전설처럼 푸르게 푸르게 마음에 그려본다.

평화와 나눔의 걷기 축제를 마치고

● **김숙자**(서울YWCA 회원걷기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화창한 날씨 가운데 지난 5월 19일 월드컵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평화와 나눔의 발자취 따라, YWCA 90주년 걷기 축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가자들이 월드컵 평화의 공원 난지 순환길을 걸으며, 그동안 대화가 부족했던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지나온 YWCA 활동 이미지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YWCA 목적문을 외치고, YWCA와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을 보며 회원들의 Y에 대한 소속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도착 지점에서는 Y-틴 회원들이, 참가자들이 100년을 향한 YWCA의 발걸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플래시 몹을 즐겁고 활기차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청소년 회원들에게 더욱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우리들의 작은 평화의 걸음이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전해질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한다. 평화와 나눔의 발자취를 선배님들의 숨결을 느끼며 감사하며 걸었다. 이제 YWCA 100년을 향하여, 변화의 중심에 서는 YWCA가 되도록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전국회원대회워크숍

“2012 YWCA 전국회원대회”를 위한 첫걸음

연합회는 5월 15일 버들캠프장에서 “2012 YWCA 전국회원대회” 준비를 위한 회원Y 회원대회 운영팀 워크숍을 열었다. 약 40여개 회원Y의 회원대회 운영팀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오는 8월에 열릴 “2012 YWCA 전국회원대회”를 준비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원대회 운영팀은 2012 전국회원대회 의미 전달과 공유, 실무 진행뿐만 아니라 향후 YWCA 회원 활동 활성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전국회원대회를 통해 회원들 간의 만남과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이 만남이 YWCA 공동체성 회복의 장으로 펼쳐질 것을 기대한다.

2012 YWCA 전국회원대회를 소개합니다!

- 누가 : YWCA 회원대표, 청소년·다문화·돌봄 회원 총 4,500명
- 언제 : 2012년 8월 18일(토) 오전 11시 30분~오후 5시
- 어디서 :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서울 송파구)
- 왜 : YWCA 100주년을 향해 걸어가는데 회원들의 만남과 소통을 위해

2012 YWCA 전국회원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 연합회 전국회원대회 준비위원회 4개 분과 (홍보, 모금, 자원봉사, 생활 및 안내)
- 회원Y 회원대회 운영팀 - 회원Y 회장, 사무총장, 회원담당 실무자, 직업훈련담당실무자

2012 YWCA 전국회원대회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2012년 전국회원대회가 YWCA 전국 회원들의 '만남의 장' 만큼, 회원 간 '소통'은 필수!

2012 YWCA 전국회원대회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나요?

- **만남** - 전국 52개 회원YWCA 만남
- **즐거움** - 공동체 놀이, 천태혁밴드 찬양, 팝페라 가수 임형주 공연
- **선포** - YWCA 100주년 비전 선포
- **축하와 감동** - YWCA 우수회원 시상, 제 16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시상

● 전국 회원 대 회 를 기 대 하 며

90 to 100

김형남(전주YWCA 회원부 위원장)

9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회원대회를 준비하면서 진행된 전국 회원대회분과 워크숍은 한국YWCA 90년이 주는 의미와 10년 후 YWCA가 한국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워크숍은 100주년의 비전을 10만 회원들과 어떻게 공유해야 할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 회원 운동체로서 역동성을 어떻게 되살려야 할지에 대하여 각 회원Y 참석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확대하는 자리였다. 전국회원대회 워크숍은 그동안 고민해온 회원운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들이 돋보였다.

예전 같으면 각 지역위원회나 사무총장 협의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결정하고 처리 할 사항들을, 각 회원Y 회원대회 운영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그 대표들이 모여서 세부사항들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회원대회분과 워크숍은 모든 내용을 공유하며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었다. 회원대회에 회원들이 단순 참가자가 되는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 동참자로서의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8월에 열릴 전국회원대회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예배의 양식과 행사의 성격을 부각시켜주는 순서배치, 100주년 비전 선포와 그에 따른 프로젝트 등 앞으로의 활동 내용과 방향을 보여주는 시도이다. 무엇보다 회원 4,5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전국의 회원들의 결속력과 거기에서 분출하는 뜨거운 에너지가 YWCA 100주년을 향한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국회원대회를 준비하면서 회원들의 소리와 소망을 담고, 한국YWCA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고 재조명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동일한 Y의 꿈을 꾸며

전배재(강릉YWCA 회장)

90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가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일을 펼칠 수 있음에 감사하다. 한국YWCA 90주년과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YWCA에 젊은 세대의 주인공이 많아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YWCA 100년에는 통일이 되어 진정한 남북평화의 땅이 될 것을 꿈꾼다.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회원운동의 결집을 통하여 YWCA 회원들이 북한이탈 주민들이 잘 적응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번 전국회원대회를 기대한다. 전국의 YWCA 회원들이 한 곳에 모여 동일한 Y의 꿈을 꾸고 소망을 품으며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평화의 순례자로 임하는 전국회원대회와 YWCA의 행사를 기대한다.

전국회원대회를 통해 도약하는 한국YWCA가 되길

이은실(전해YWCA 간사)

한국YWCA가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에 바라는 '생명의 바람으로 세상을 살리는' 데 있기에, 우리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소외된 이웃, 나아가 한국사회를 위해 일해온 한국YWCA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어 생명살림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를 통하여, 그리고 회원대회를 준비하며 YWCA 회원의 힘이 하나로 응집될 것을 소망하며 그 날을 기대한다.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이해

글 | 표대중(한신노무법인 노무사)

지난 2011년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제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 제189호”(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Convention, No. 189)(이하 “가사노동자협약”이라 함)과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권고안 제201호”(Recommenda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Convention, Recommendation No. 201)”이 함께 통과되었다.

통상 ILO의 협약을 한국에서 비준을 한 경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 받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본 ILO 협약을 비준을 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독립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국내 법과의 조율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사노동자(법령상에는 ‘가사사용인’으로 명시)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이외 최저임금법,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의 가사노동자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국내 가사노동자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공식통계는 없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국내의 가사 및 육아도우미 노동자 규모는 최소 2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가사 및 육아도우미 외에도 가사노동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간병인, 산후도우미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국내 가사노동자의 규모는 최소 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향후 돌봄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가사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다.

ILO의 가사노동자협약이 국내에 미치는 가장 큰 의미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왔던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것, 실질적으로는 가사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자협약은 전체 1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협약의 내용을 크게 구분하면 적용 범위와 대상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기준의 제시,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문 가운데 YWCA 돌봄노동과 관련된 협약의 주요 내용을 간

ILO의 가사노동자협약이 국내에 미치는 가장 큰 의미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왔던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것, 실질적으로는 가사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자를 정의하고 있다. 가사노동이란 “가구(혹은 여러 가구들) 내에서 수행되는 또는 가구(혹은 여러 가구들)를 위해서 수행되는 노동”이다. “가사노동자”는 고용관계 속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생계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가끔 또는 산발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가사노동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가사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인정,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4조 18세 이하 청소년 가사노동자의 교육 받을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 학대, 추행, 폭력으로부터 가사노동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6조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이 일반근로자와 비교해서 잘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7조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와 가사노동자의 성명과 주소
- 수행할 업무의 유형
-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 근로시간
- 업무개시일과 계약기간
- 특별히 숙식제공, 수습기간, 본국송환조건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
- 계약종료 관련 사항

이상의 근로계약조건을 살펴보면 본국송환조건을 제외하고는 국내의 일반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이주 가사노동자의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9조 가구 내에 거주하는 가사노동자의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노동시간, 연장노동수당, 휴게시간과 주휴 및 유급연차휴가에 대해 가사노동자와 일반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주휴는 적어도 24시간의 연속된 휴게시간이 되어야 하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11조 최저임금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제12조 가사노동자의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가사노동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14조 가사노동자의 모성보호 및 사회보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15조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관행(과다 수수료, 인신구속 등)으로부터 가사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16조 재판 등 분쟁해결 절차에서 가사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7조 가사노동자들의 권리침해 및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손쉬운 보장방법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가사노동자협약에 대하여 찬성표를 던졌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총회에서 이 협약안에 찬성한다고 연설을 하였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한국정부가 이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관련 노동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자협약이 체결된지 벌써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예상 가능한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협약비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서, 가사 및 돌봄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이 향후 우리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가사노동자협약을 비준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가사노동자들이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돌봄으로 인태하는 살림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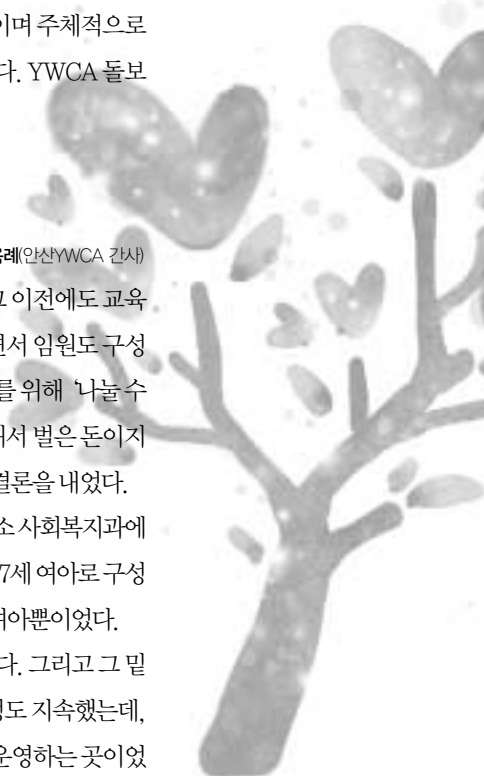
한국YWCA는 2011년 10월에 개최된 제38회 전국대회를 통해 '돌봄 정의' 운동을 대사회적으로 천명하며, 돌봄노동자들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YWCA는 돌봄노동자들의 자발적 조직구성을 격려하며 후원하고 있다. 돌봄노동자들의 소그룹운동을 격려하고 권장하는 이유는 YWCA가 추구하는 운동방향이 그리스도 공동체 실현이기 때문이다.

YWCA 돌보미 소그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부름 받은 종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일꾼 공동체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YWCA 돌보미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고 살리셨던 것처럼 가정돌봄을 통해 '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살림 역할'을 위임받은 돌보미들이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또 다른 여성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아 삶의 지혜와 향기를 나누어 준다면, 그 여성을 포함한 그 가정도 풍요롭게 된다. 돌보미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YWCA 돌보미들은 이러한 '살림'의 영역을 자발적이며 주체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바로 돌보미들의 '봉사단' 활동을 통하여 이 일을 해내고 있다. YWCA 돌보미들은 '봉사단' 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안산YWCA 다사랑회

박옥례(안산YWCA 간사)

안산YWCA 다사랑회는 2001년부터 돌보미들의 동아리로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육과 돌보미들의 활동은 진행되어 왔었다. 다사랑회 회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임원도 구성되고 조원들이 편성되었다. 그런 가운데 2004년 임원회의에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나눌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의논하였다. 그 결과 한 달 동안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이지만, 그중에 1% 또는 1000원이라도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론을 내었다.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2004년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였다. 그곳에서 의뢰 받은 곳이 한 장애인 가족이다. 엄마, 아빠, 남자아이, 7세 여아로 구성된, 단란하게 보이는 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족은 7세 여아뿐이었다. 다사랑회원들은 조별로 나누어 매주 토요일이면 조리실에 모여 밑반찬을 만든다. 그리고 그 밑반찬을 들고 그 가정을 방문하여 대청소를 한다. 장애인 가족 봉사활동을 3년 정도 지속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지원요청이 많이 왔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찾은 곳은 목사님이 운영하는 곳이었



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 등 스물 다섯 명 정도 모인 곳이다. 이곳에서는 이·미용서비스, 목욕, 대청소, 말벗 등을 해왔으며, 추석과 설에는 할머니들에게 추억을 심어드리려고 송편 재료, 만두속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함께 송편과 만두를 빚었다. 이곳 봉사활동도 3년 정도 지속했는데, 그곳이 점점 확대되면서 우리는 다른 곳을 찾게 되었다. 다사랑회는 그야말로 소외된 곳을 찾기로 했다. 그 결과 2009년, 수녀님이 운영하는 할머니 스무 명 정도 계신 곳을 찾게 되었다. 그곳은 매월 1회 넷째 주 토요일 찾아가서,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해드리고 있다. 지금까지 이곳 할머니들과 함께 하고 있다. 또한 다사랑회는 매년 부활절이면 중앙역에서 1,000명에게 부활란 나누기를 하고, 매년 겨울이면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다사랑회원 중 어려운 가정을 찾아 김장과 쌀 나눔 행사를 해오고 있다. 출산하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산모에게도 산후조리 서비스도 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다사랑회 임원회의를 거쳐 언제든지 달려가고 있다. 돌보미 동아리 다사랑회는 어렵고 힘들게 일하면서 지친 몸이지만, 나보다 더 지치고 힘든 누군가를 기억하며 돌봄과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록 몸은 힘들지라도 내 이웃을 돕는 뿌듯하고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힘을 얻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당당한 모습의 최고의 돌보미가 되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달려간다.

서울YWCA 냉장고 봉사단

최정희(서울YWCA 간사)

서울YWCA 돌보미 소그룹 냉장고 봉사단은 2010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돌봄회원들은 주체적으로 나서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와 자부심을 갖는다. 냉장고 봉사단은 두 명의 회원이 '짜' 을 이뤄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평소 손이 잘 미치지 않는 냉장고를 청소해 드리고 간단한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기로 결정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냉장고 봉사단 30명의 회원들이 구로노인복지관과, 신내노인복지관에 소속된 독거노인 열 두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한다. 한 달에 한번, 2인 1조로 짝을 이뤄 방문하여 냉장고를 청소하고 집안정리, 청소, 말벗 등을 해드린다. 또한 서울Y에서는 각 팀에 1만 원씩을 제공하여 어르신들께 과일이나 반찬 등 작은 간식거리 등을 사다드릴 수 있도록 한다. 2012년 현재, 열다섯 가정에 29명의도우미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봉사를 하고 있다. 바쁜 회원가운데 단연 으뜸인 돌봄회원들은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을 한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기적은 매일 일어난다. 바로 방문봉사를 중단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비를 들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드리고, 내복을 전달하고, 이불을 갖다 드린다.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파악하여 전달하고, 노인들의 외로움에 공감하고 어려운 형편을 보고 안타까워한다. 돌봄을 전문분야로 삼고 있는 회원들이 자신의 직무능력을 살려 독거노인들을 도우니, 봉사의 내용도 질적이고 충실하다. 냉장고 봉사단 회원들이 만들어 가는 기적은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YWCA 복지사업단 10년을 돌아보고, 내다보며

정리 | 편집실

2002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YWCA는 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YWCA복지사업단의 과거,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위한 과제들을 찾아보기 위해 기념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콜로키움이 열렸다. 이날 박은실 연합회 운동국 국장이 '한국 YWCA 복지운동의 과제와 전망-YWCA복지사업단 활동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김혜경 복지사업단 이사이자 부산Y 사무총장이 'YWCA복지사업단의 10년을 돌아보며-회원 YWCA 제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박은실 국장은 YWCA 복지사업단 10년을 돌아보면서 복지사업단의 10년을 '탄생과 유아로의 성장'이라 요약하며, 지부와 시설이 늘어났으며 사업의 종류가 확장되는 기본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YWCA복지사업단 목적과 활동을 돌아보면서, 복지사업단이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지역종합복지서비스 제공' 해왔으며 지부 시설을 통한 지역 복지 활동은 지역주민과 가까운 관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생산·공급하는 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했다. 복지사업단 운영을 돌아보면서 '재단법인 성격의 유지에 기본을 둔 운영'으로 요약하며 기본적 재산을 만들고 법인 유지를 위한 행정 처리를 하는 일이 운영 주요 과제였음을 말했다. 그동안의 운영 원칙은 '지역사회 중심, 참여자 역량강화 중심,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고, 앞으로 YWCA복지사업단에 대한

대내외적 사회적 기대를 파악하고 부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YWCA복지사업단이 현재 한국 사회가 어디에서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회 지표'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와 실천을 지속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부산Y 김혜경 총장은 'YWCA복지사업단의 운영 전략 부재, 자원 및 자원 동원의 취약성, 사회복지 시설 운영법인의 이원화, Y복지관의 특화사업 부재, 법인과 사회복지기관과의 소통체계 부족, 사회복지사업과 YWCA 사업과의 관계 모호성'이 앞으로 YWCA복지사업단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장의 실천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법인 운영을 기대하면서 '법인의 목표와 역할 설정 프로그램 개발, 자원 확보 노력 그리고 사회복지기관과 법인과 자유로운 소통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10주년을 맞이한 YWCA복지사업단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평화와 정의의 사회복지 사회를 건설한다'는 설립 목적에 대한 책임을 되돌아볼 때이다. YWCA복지사업단이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와 정의의 사회복지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전통형·산업형의 성매매형태가 혼재하고 있었으며 많은 수의 여성이 성매매의 착취로 고통받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여성의 문제를 전담하여 상담하는 기관이 없었다. 울산YWCA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2004년 울산YWCA현장상담센터(현,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를 개소하였다. 상담소를 개소하면서 많은 여성이 상담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가정과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어 타시도의 시설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울산YWCA에서는 2005년 사회복지법인 울산분사무소를 설립하고, 2006년 2월 성매매피해여성 일반지원시설 씨밀레를 개소하였다. 성매매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억압을 받았던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씨밀레'는 '영원한 친구'라는 뜻이다.

성매매피해여성일반지원시설 울산YWCA 씨밀레

그녀들의 봄은 이제 시작이다

글 | 김도희(울산YWCA씨밀레 팀장)



씨밀레의 입소정원은 14명이며, 입소기간은 1년(6개월 연장 가능)이다. 2층의 단독주택 건물로 외부의 간판이나 알림이 없는 비공개시설이다. 1층은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상담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2층은 성매매피해여성 14명이 가족처럼 생활하는 공간이다. 이 작은 공간에서 언니와 동생으로 만난 14명의 성매매피해여성은 서로를 의지하고 독려하며 꿈을 만들고 키워가고 있다.

성매매피해여성은 대체적으로 10대의 청소년 시절에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은 경우가 많다. 가출을 하여 친구집과 PC방을 전전하며 지내던 그녀들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고 친구의 소개 또는 신문의 광고 등을 보고 성매매업소에 가게 된다. 처음에는 간단한 서빙만 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지각비, 결근비와 같은 명목의 벌금으로

인하여 점차 채무가 늘어나고 다방에서 집결지까지 보내지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성매매의 착취구조 속에서 가장 아픔담고 활기차게 보내야 할 여성의 20대, 30대가 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아픔으로 얼룩지게 된다. 거기에 선불금과 같은 각종 채무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씨밀레는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는 심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개별적인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여성들을 옥죄던 문제 중 하나인 채무를 선불금무효소송,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어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성매매와 음주, 흡연, 약물, 불규칙한 생활습관에 노출되었던 여성들은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씨밀레에서는 병원과 연계하여 여성들

이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여성은 청소년 시절 학업이 중단되어 학력이 매우 낮다. 씨밀레만 보아도 약 60%가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성매매여성이 사회에 돌아가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다보면 성매매로 재유입되는 경우도 있다. 씨밀레에서는 이러한 탈성매매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이·미용 분야와 조리 분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선호하며, 최근에는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여성들도 있다. 중단하였던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아 중·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여성도 많다.

씨밀레는 다양한 심리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리본과 한지, 비즈공예를 비롯하여 집단미술치료, 연극치료, 원예치료, 자원봉사활동, 경제, 소방안전, 법률, 이미지메이킹 교육, 문화체험·캠ป์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나간다. 특히 여성들이 공예프로그램을 통하여 만든 작품들은 여성주간 기념행사, 성매매방지법시행 기념행사 등 연계행사에서 자활물품전시 및 판매전을 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여성들에게 배분되어 자활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자활물품판매전을 통하여 울산시민에게 씨밀레와 성매매근절을 알리고 있다.

씨밀레가 개소한지 햇수로는 벌써 7년째이다. 그동안 많은 탈성매매여성이 씨밀레를 거쳐갔으며, 지금도 14명의 성매매피해여성이 자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7년의 시간 동안 씨밀레를 통해 사회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은 많은 탈성매매여성들은 이·미용 기술을 익혀 취직을 하기도 하였으며, 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하여 본인과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학구열을 불태워 전학년 장학금을 받는 여성들도 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에 취직한 여성,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결혼하여 3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일도 포기하지 않는 똑부러지는 워킹맘으로 성장한 여성도 있다. 또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친어머니와 함께 음

식점을 개업하기를 꿈꾸며 준비 중인 여성도 있다. 이렇듯 한 가정의 아내, 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딸로서 살아가며 요즘은 결혼식과 돌잔치 초대와 같은 반가운 소식을 전하여 씨밀레에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은 탈성매매를 해서 씨밀레에 온 직후에는 업주의 욕설, 협박 등이 환청처럼 들리기도 하며,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외출도 꺼리게 되고 잠도 설친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채 씨밀레에 온 여성들이 서로서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면서 세상에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작은 희망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그네들의 모습도 보게 된다. 앞으로의 발걸음이 쉽지 않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일어나 흠뻑 땀을 흘리고 다시 힘차게 달려가기를, 그리고 넘어진 그네들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달려가주는 씨밀레가 되기를 기대한다. ♡



1 개소5주년기념식
2 울산지역시민인문강좌 수료식
3 자활물품 전시 및 판매

행복마을을 만드는 마술사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한중훈 사회복지사

한중훈 사회복지사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지원사업과 부산광역시 지원 행복마을만들기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행복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리 | 편집실

Q 반갑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과 지역사회역량강화지원사업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일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질문처럼 어마어마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역조직팀에서 근무하는 저는 사회복지사는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읽는 '복지요결'이라는 책에 보면, 사회복지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고 정붙이고 살만한 관계, 더불어 살만한 관계, 약자를 배려하고 돕는 관계, 공생적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도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시작은 3년 전에 가입한 청년회에서 굶은 일(방범, 방역)을 하면서 신뢰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청년회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만남이 이루어지며 주말에



방역활동을 하는데, 보수를 받는 것도, 인정받는 일도 아니었기에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었고 지역 내 주민센터와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의 문제점을 직접 듣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함께 마을만들기를 해보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때마침 부산광역시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진행되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Q 지역사회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 마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단가꾸기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역량강화지원사업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여 주민조직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단가꾸기 사업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의 큰 문제점 중 하나였습

니다. 화단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화단 인근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직접 관리를 하면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을 직접 '만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의 강점, 약점에 대해 묻고 알아가며, 지역활동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10명의 주민들이 모였고, 주민들로부터 해결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자료나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에 대해 피상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40년 이상 거주하신 주민들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만남을 통해 관계도 더욱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과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 외부용역으로 화단정비를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주인의식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역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성과를 주민들에게 되돌리는 것. 이것이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주민조직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문제라고 느낀 부분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해서 되겠나?', '누군가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둬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들과 첫 모임 때 들었던 말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나'라는 답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시작하자라고 설득하여 작은 화단정비

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화단에 꽃도 피었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며 애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화단 이름이 '사필화(사랑이 필요한 화단)'입니다. 현재 4개의 화단정비를 끝냈으며 마을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지역주민 아이디어로 벽화작업도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이었는데, 주민들의 관심과 손길이 닿으니 마법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Q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지사님께서 꿈꾸는 '행복마을'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마을은 공생하는 마을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삶이 힘겨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일지라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마을, 정(情)이 있는 주민들로 가득하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진짜 '행복마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YWCA를 통해 꿈꾸는 세상이 있으신지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YWCA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나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YWCA에서 일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며 일을 하는데 여성단체라고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조직인 YWCA에서 활동하는 것에 오히려 강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와 한국 YWCA가 사회적 약자를 수혜대상자로 보는 관점을 벗어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의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그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판타스틱할 것입니다. ^^



화단가꾸기



행복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



사랑이 필요한 화단 2호

포스코와 YWCA가 함께하는 돌력 없는 학교 만들기 '우리학교는 친친와이파이 존'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 이해와 공동체성 향상,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YWCA 청소년 운동

- 대상 : 중학생
- 실시지역(회원YWCA) : 서울, 수원, 순천, 진주, 포항
- 기간 : 2012. 6 ~ 2013. 1
- 내용

건강한 학교 문화 만들기	학부모의 대안 만들기 프로젝트	학교 공간 바꾸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교사 간담회, 협력학교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강사(자원활동가)교육 • 친친 공감 프로그램(협력학교 반별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토크 콘서트 "학부모 희망과 상상 콘서트" • 소그룹 멘토링 프로그램 "엄친아와 엄친아의 talk talk tal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적 학교공간 구성 "친친 와이파이존"

'키우자, Y다운 리더' 학교

청소년 회원들을 Y다운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토요학교 프로그램

- 대상 : 중학생
- 실시지역(회원YWCA) : 2012년도 고양, 서울, 안양, 청주 시범학교 운영
- 비전
 - 서로 배우고, 전파하고, 청년의 영혼을 치유하는 운동
 -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를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서 나눔으로써 여러 지체가 서로 함께 돌보게 하신 그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청년 육성
- 내용
 - 고양Y "평화여행" - 평화와 통일 프로그램
 - 서울Y "인권" - 나와 남에 대한 이해
 - 안양Y "봉사" - 지역사회 참여활동
 - 청주Y "인문학" - 인문학적 감수성 고양

* Y다운 리더란

내면의 문제와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 앞에 자기결정권과 주체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청소년리더

공동체 의식과 시민성을 가지고 자기 진로와 미래 설계를 하는 청소년리더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참여 의지와 건강한 청년시민상을 품은 청소년리더

동아시아 정세와 '북한문제'

글 | 이기호(한신대 교수)

북한의 미래를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 자신일 것이다. 북한내부의 권력문제나 경제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다. '북한문제'는 이미 동북아 전체의 핵심적 사안이 되었고 주변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는데 그 관계가 지극히 불안정하고 각 국의 상황 또한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해는 6자회담 당사국의 모든 국가가 선거 혹은 이에 준하는 권력교체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각 국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북한 또한 미국과 한국의 대선에 촉각을 세우고 내년에 출범할 정권과 그들의 대북정책을 노심초사하며 두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접근법과 해결방법이 극단적으로 대립되기도 한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북한문제를 아시아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핵문제, 탈북자 북송문제, 북한주민의 영양결핍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과 북미교과정상화 등 북한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오늘의 시점에서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월가를 점령하라' 등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의 실패로 흥역을 앓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붕괴설까지 나타나며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든 이른바 서구선진국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아시아에서 찾고 있다. 게다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10년간 전쟁을 치른 미국의 성적은 대단히 우울하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테러와의 전쟁을 뒤로 하고 아시아에서 새로운 패권을 구성하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과의 협력과 상호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아시아태평양순방 일정에서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까지 참석하였고 일관되게 아시아와의 경제, 안보 및 지역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힐러리클린턴 국무장관의 아태지역 순방으로 이어지면서 구체화되었다. 게다가 미국이 강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가입을 결정하면서 미국의 중국견제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주도권이 한층 힘을 얻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과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시아시대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냉전질서를 강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힘을 쏟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북한 지도부는 물론 주변국가들은 북한내부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북미관계를 포함한 동북아관계라는 세 층위의 역동성과 복잡성 속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세 층위간에는 조화를 이루는 방향보다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에는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전개되어왔다는 점이다. 예컨대 2000년 6.15선언과 남북정상간의 역사적 만남은 그 해 11월 올 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의 평양방문으로 이어지면서 북미관계정상화를 기대했지만, 부시가 11월 대선에 승리함으로써 클린턴의 평양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부시정부는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진전된 남북관계조차 역주행을 해야 했다. 북한문제에 대하여 사실상 주변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은 서로

“북한문제가 이미 동북아 혹은 글로벌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시민참여형 외교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시켜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되 분단을 극복하는 공존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계속 어긋나왔다.

북한문제가 이미 동북아 혹은 글로벌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시민참여형 외교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시켜가는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2013년 체제로서 동북아질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6자회담 당사국의 정치리더십이 조화를 이루는 외교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각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대와는 항상 어긋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구성원들과 그들의 임기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외교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간 공식채널 이외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트랙 1.5 및 트랙 2 등 다양하고 입체적이며 포괄적인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야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에 의한 의원외교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해 본다. 또한 도시간에 경제 협력과 문화적 교류 등 도시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시간 평화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종교간 협력 혹은 단체간 협력 못지않게 중요한 시민참여형 외교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되 분단을 극복하는 공존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1991년 남북이 동시에 유엔가입을 하고 이미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였듯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불행히도 2010년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 그리고 최근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이러한 위험성이 여전히 내재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정부 이후 더욱 고조된 남북긴장관계는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상호비방을 통한 정통성의 부정 곧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이 격화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체제가 김일성유일체제에 의하여 정치권력이 유지되고 통치의 골간을 이루며 주민들 또한 사상교육을 통해 이념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 지도자에 대한 비방을 북한은 참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시작한 '나꼼수'와 같은 팟캐스트가 가능한 우리사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또한 북한체제의 자존심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혹은 경제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해온 '적대시 정책'의 경우도 북한정권의 존엄성과 자존심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올 3월 뉴욕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회의에서 북한의 고위급 관료가 언급한 내용 가운데 두 가지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하나는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인식의 틀(mindset)을 전환해줄 것과 다른 하나는 북미간의 대립을 종식하고 미국과 친구관계로 전환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이들 간 비공개로 열린 대화에서 이들의 발언은 진심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느끼기에 충분했다.

2012년 한국과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도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북한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북한지도부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북한문제'가 이미 동북아의 핵심적 사안이 되어있는 만큼 각국의 정부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시민참여형 평화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다시 시작할 때이다. 



뮤지컬 「언틸 더 데이」 UNTIL THE DAY


글 | 김은주(연합회 평화팀 위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해 빵모양 저금통에 100원, 200원을 모으는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아이들 책상 위에 또 하나의 작은 저금통이 생기기를 기대하며 아이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과 탈북현실을 다룬 언틸 더 데이(Until the Day)라는 뮤지컬을 관람하였다.

나는 3년전 까지만 해도 나는 탈북자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 탈북자문제는 나와 내가 하는 여성운동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이념과 체제의 문제라고만 여기며 살았었다. 그런데 독일 한스 자이텔재단과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평화하나 여성 둘”이라는 이름으로 탈북여성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만남과 소통을 통해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 배려와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지난 3년 동안 함께 한 우리들은 이제 작은 문턱 하나를 넘어선 듯싶다. 탈북여성, 그녀들은 나의 평범한 이웃이며 같은 여성문제와 자녀양육을 고민하는 동료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탈북자는 귀순용사가 아니다.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탄압을 피해 사선을 넘어 우리의 땅으로 들어와 사는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다.

언틸 더 데이는 프랑스 기자의 눈으로 본 북한의 낮과 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다. 북한 노동당 간부인 주명식과 꽃봉오리 예술단 단원이자 주명식의 연인인 강순천, 주명식의 부하당원인 김선관, 여동생인 주인희가 중심이 되어 극을 이끌어 간다. 꽃봉오리 예술단 단원 강순천은 지하교인으로서 꽃제비를 돕고 연인인 주명식은 그녀를 도우면서 북한체제에 대한 염증을 느낀다. 프랑스 기자인 미카엘은 북한의 암울한 현실을 몰래 취재하다 이들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명식과 주인희, 그리고 강순천의 탈북을 돕게 되지만, 강순천만 가까스로 탈북에 성공한다. 주인희는 김선관의 총에 맞아 죽고 주명식은 잡혀

사형에 처해진다. 신의 존재를 부인했던 주명식이 사형되기 직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다. 당신이 계시다면 강순천을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해달라는 간곡한 기도였다. 그리고 김선관을 통해 강순천이 남으로 무사히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환한웃음을 지으며 사형대로 올라간다. 극을 보는 내내 먹먹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 이 복잡한 감정들이 나를 지배했다. 한낱 미물인 짐승도 산천을 자유롭게 뛰어 다니는 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게 만든 그 체제가 혐오스러웠다. 언틸 더 데이는 그런 혐오스런 체제에 믿음을 통해 희망의 불씨를 피워보고자 하는 강렬한 염원과 기도를 담았고 그 기도가 우리들의 가슴을 후벼 판다.

언틸 더 데이는 단순한 뮤지컬이 아니다. 북한 주민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하나이다. Until the day, 그날이 올 때까지의 그날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3천리밖에 되지 않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날이겠고, 탈북자에게는 북에 두고 온 가족과 형제들을 만나는 날이겠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 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언틸 더 데이 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창조세계의 보전과 핵 없는 세상

글 | 장윤재(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네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에스겔 28: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 30:19)

지구촌에는 약 2만기의 핵탄두가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보
유한 핵탄두 중 2천기는 지금도 단추만 누르면 발사가 가능
한 상태다. 핵무기의 위협이 절정에 이르렀던 1985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학자 고든 카우프만(Gordon D. Kaufman)
은 핵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적이며, 그 자
체로 성령의 역사에 반대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약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핵무기로 인한 지구 전 생명공동
체 멸절의 위협 아래 살고 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을 고
집하는 이유는 그것이 핵무기의 원료를 생산해주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발전도 평화와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또한 핵에너지는 엄청난 핵폐
기물을 생산한다. 핵폐기물은 최대 100만년 동안이나 방사선
을 내뿜지만 그것을 인간과 생태계로부터 격리시키는 드림
용기 수명은 고작 40년뿐이다. 우리는 엄청난 핵쓰레기를 후
손들에게 떠넘기고 죽을 것이다. 대대손손 생명과 안전에 위

협을 가하는 행위는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며 후손과 지구
생태계에 대한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
랑으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자기가 잠깐 편하자고
맹독성 물질로 오염시키는 것은 지으신 분에 대한 모독행위
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이 세계에서 가장 핵
밀집도가 높은 '핵 지뢰밭'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하면, 핵발전 밀집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계 1위다. 이
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핵 없는 세상을 이루는 일은 세
계평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제가 되었다.

핵은 결코 평화와 양립 할 수 없다. 그리고 핵무기와 핵발전
은 기독교 신앙과도 결코 양립할 수도 없다. 핵무기와 핵발전
은 한마디로 권력과 폭력의 상징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저
'먹음직' 도 하고 '보암직' 도 한 선악과와 같다. 이러한 핵으
로 인간은 정복과 탐욕의 체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체제는
지구 생명공동체 전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세계최초의 인공 원자료를 지어놓고 이제
인간이 조물주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자부했다. 하지
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네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네
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에스겔 28:2)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의 말
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러한 혼동 속에서 죄인은 자신을 거짓 신으로
만든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핵을 옹호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핵무기와 핵에너지로 인한 총체적 생명의 위기 앞
에서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핵으로 오염되고 파괴되는 창조
세계 앞에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다. 핵 없는 세상
을 함께 꿈꾸고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고 가
꾸어 아름답게 보존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국
YWCA의 용감한 지도자들을 부르신다. 이 땅에 생명을 살리
고 평화를 일구는 일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복되고 충성된 평화의 사도, 생명의 일꾼들이 되길
기도한다. 아멘. 

5월 월례아침기도회



연합회는 5월 1일 오전 7시 30분에 5월 월례아
침기도회를 열었다. 장윤재 목사가 '창조세계의
보전과 핵 없는 세상'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
었으며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
는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YWCA복지사업단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콜로키움

YWCA복지사업단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콜로키움이 5월 10일 복지사업단 이사, 실행
위원, 회원Y 회장, 사무총장, 복지관장 등 7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
다. 신기형 꿈의동산 이한 교회 담임목사가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을 전했다며 2부로는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자세한 내용 p.15~)

전국회원대회워크숍

연합회는 5월 15일 버들캠프장에서 2012 전
국회원대회 준비를 위한 회원Y 회원대회 운영
팀 워크숍을 열었다. 전국회원대회 세부일정
소개와 비전 선포 관련 활동, 참여 선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 p.8~)

회원증모워크숍

2012 YWCA 회원증모워크숍이 5월 15일~16
일까지 버들캠프장에서 개최되었다. 회원Y 회
원위원장, 회원담당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
한 이 행사는 개최예배 방원철 성광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말씀을 시작으로 차경애 연합회 회
장의 YWCA 회원의 의미와 회원증모의 중요
성'강의, 광주Y 최양림 회장과 제천Y 박영미
사무총장이 각각 회원증모 사례를 발표했다.
저녁시간에는 '재정확보를 위한 모금의 실제'에
대한 구체적 모금 방법에 대해 배운옥 도움과

나눔 이사의 강기가 있었으며 다음날 회원증모
전략수립워크숍과 모금전략수립워크숍 2개 분
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전략수립 방법과 과정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학의집 개관 12주년 감사예배

은학의집 12주년 감사예배가 5월 17일 은학의
집 은학홀에서 열렸다. 은학의집 이용어르신,
강사, 운영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감사예배는 분당매일교회 정승진 목
사가 '행복한 가득한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을 전했다며, 은학의집 어르신들이 직접 예배
에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연대 창립 기념식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연대 창
립 기념 행사가 4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
YMCA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
성연합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기독교청년
협의회 등 약 25개의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 창립
식을 갖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신학과 윤리'
라는 제목으로 기념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YWCA연합회-성광감리교회

북한어린이돕기 어머니 축제



연합회는 교회협력 북한어린이돕기 운동 일환
으로 5월 16일 성광감리교회와 '어머니축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북한어린이 영적 입양 운
동' 행사를 가졌다. 성광교회 어머니기도회를
주축으로, 북한어린이돕기 분유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고 한 가정 당 한 명씩 북한 어린이를 영
적으로 입양하는데 서약하였다. 이날 행사는
유성희 사무총장의 YWCA북한어린이돕기 운
동소개, 북한어린이 사진전과 함께 가수 서유

연합회 소식

석 집사, 마포구립여성합창단, 상명대 성악과
학생들의 무대와 간증으로 진행되었다.

YWCA-포스코

'우리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즌' 지원사업



연합회와 포스코는 5월 21일 포스코센터에서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우리학교는 친친 와이
파이즌' 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의 소통 개선
과 관계성 회복을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다.

제8회 YWCA 증경회장모임

제8회 YWCA 증경회장모임이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수원Y 회관과 광명의회에서 열렸다.
수원Y 주관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전국 회원Y
와 연합회 증경회장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예배, 사무회의, 작은 음악회 및 친교의 시
간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차기 증경
회장모임을 이끌어갈 회장에 전주Y 홍기자 증
경회장이 선출되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담당 실무자 워크숍

2012 YWCA 재가장기요양기관 담당 실무자 워
크숍이 5월 17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10개
회원YWCA 12명의 실무자가 참석하여 회원
YWCA 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현황에 대해 공유
하며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정

- 김유미 평택YWCA 사무총장 취임 (2012. 5. 1)
- 김태연 후원회 이사 국제 소림티미스트 한국협회 총재 취임
- 이슬비 운동국 간사 퇴직(2012. 4. 30)
- 황수진 운동국 간사 퇴직(2012. 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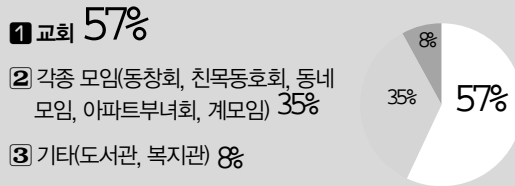
회원은 YWCA '존재의 힘'

“당신의 참여가 생명세상을 만듭니다.” 회원은 YWCA 존재의 힘을 굳게 믿으며 2012년 한국YWCA 회원증모는 전년대비 5% 회원증가를 목표로 전국적으로 활동개시 또는 준비 중에 있다. 이에 2012 YWCA 회원증모워크숍이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 버들캠프장에서 열렸다. 전국적으로 회원증모의 바람이 녹음의 찬란함처럼 푸르른 5월, 회원증모 교수들에게 비법을 전수 받아보자.

주위에 있는 분들이 YWCA 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 YWCA 회원인 우리들은 그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2012 YWCA 회원증모워크숍에 참석하신 이사, 실무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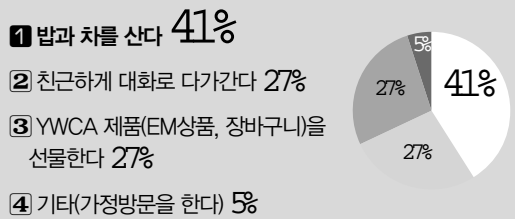
Q 만남은 어디에서?

어디를 가면 YWCA 회원이 되실만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사귄 수 있을까요?



Q 마음 문 여는 확실한 방법

상대방이 Y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설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Tip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Y에 흥미~하더라!

- YWCA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 Y후원으로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여성의 힘으로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 Y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Q YWCA 표현하기

Y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 YWCA는 여성을 위한 단체임을 강조한다 32%
 - Y는 여성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적 위치를 제공한다.
 - Y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 Y는 여성의 인권향상에 앞장선다.
 - Y는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다.
- YWCA는 봉사기관, 돕는 기관임을 강조한다 19%
 - Y는 어린이와 청소년, 소외된 계층을 돌본다.
 - Y는 소외된 자와 함께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 함께 하는 운동이다.
- YWCA는 다양하고 멋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14%
 - Y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일들을 한다.
 - Y는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YWCA는 사회기독교 단체임을 강조한다 11%
 - Y는 교회가 꼭 해야하는데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 Y는 사회 속의 교회다.
 - Y는 기독교사회봉사단체이므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달라.
- 기타 5%

Y는 사랑하고 투자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내가 Y에서 10년 넘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Y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곳이다

- Y운동에 함께 하시면 삶이 변합니다, 함께 해요
- Y운동은 사회에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Y에 오셔서 함께 해요!

회원YWCA 소식

YWCA News

● 북부

강릉 YWCA 박현순 간사

● 제24차 회원운동 발대식

강릉Y는 5월 14일 제24차 회원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YWCA 정의, 평화, 생명의 기독교 시민운동에 많은 회원이 동참하여 지역에서 YWCA 목적을 이루어가는 강릉Y를 기대한다.

● 의류수선사 교육

강릉Y는 5월7일부터 7월 27일까지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여성 대상 의류수선사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통해 자립능력을 갖추고 전문활동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정착을 목표로 한다.

동해 YWCA 김정은 간사

● 회원증모 발대식

동해Y는 4월 23일 회원 증모 발대식이 있었다. 공기현 지도목사의 말씀과 이천진 목사의 YWCA의 목적과 나아갈 방향, 회원증모의 중요성과 비전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발대식을 통해, 회원 증모의 의미와 지역사회 속에서 동해Y의 목적을 새길 수 있었다.

●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발대식

동해Y는 4월 30일 동해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미디어워치 전종천 대표가 인터넷 게임중독과 미디어 중독의 실태, 그로 인한 폭력의 사례 및 예방에 대한 특강을 했다. 감시단의 중요성과 책임을 느끼며 참석한 학부모들도 바른 가치를 세우는 교육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 YWCA 박서영 간사

서울YWCA 90주년 걷기축제



서울Y는 5월 19일 월드컵 평화의 공원 내 유니세프광장에서 서울YWCA 90주년 걷기축제를 하였다. 약 서울Y 회원, 이사, 실무자, 일반 시민 등 약 1,500명이 참가하여 YWCA 평화정신을 되새기고, 서울Y 90주년을 함께 기념하였다.

속초 YWCA 백수미 간사

● 북한안주지역 분유보내기 캠페인



속초Y는 5월 5일 엑스포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 실무자, 이사들과 함께 북한안주지역 분유보내기 캠페인을 펼쳤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이 날, 앞으로 즐거움을 북한어린이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캠페인을 펼쳤다.

원주 YWCA 김혜선 간사

● Y-틴 사랑의 우체국 발대식



원주Y는 4월 14일 Y-틴 사랑의 우체국 발대식을 가졌다. 7개 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지는 이때에 Y-틴 사랑의 우체국 학생들이 또래와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 설 것이라 기대한다.

인천 YWCA 이한나 간사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꿈 찾기 비전 스쿨'

인천Y는 매주 토요일 '꿈찾기 비전스쿨'을 진행한다. 아동·청소년이 체계적인 사회, 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진로코칭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습코칭도 한다.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자기이해와 잠재력 개발 및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미래비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경기

고양 YWCA 전선영 간사

● 지도력양성을 위한 이사워크숍

고양Y는 지도력양성 일환으로 춘천 남이섬에서 이사워크숍을 진행하였다. 8명의 이사와 실무자 2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팀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성남 YWCA 황정아 간사

● 결혼이민여성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성남Y는 5월 7일부터 결혼이민여성 대상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과정을 시작하였다. 총 30여명의 수강생들이 9월 16일 있을 시험을 앞두고 관광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4과목으로 구성된 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을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우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자신의 모국어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더 쉽고 재미있게 안내하는 전문직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수원 YWCA 정지영 간사

● 애들이 함께 밥먹자 캠페인



수원Y는 4월 19일 수원고등학교 1,8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들이 함께 밥 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수원Y 이명조 회장과 이사, 위원, 실무자가 학생들에게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북한어린이사진 전시를 통하여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산 YWCA 문성은 간사

● 텃밭상자를 활용한 녹색시민 환경교육



안산Y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시민 15명을 대상으로 텃밭상자를 활용한 녹색시민 환경교육을 3회에 걸쳐 열었다. 씨앗과 모종 선택법 등의 도시농업 이론교육과 함께 배란다, 옥상 등에서 텃밭상자를 활용하여 모종을 키우는 법을 배웠다. 분회 옥상에 다양한 모종을 심어 텃밭을 꾸미고 앞으로 옥상 텃밭을 함께 가꾸며 모임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양 YWCA 이한나 팀장

●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안양Y는 5월 9일 근명중학교에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사, 실무자, 학부모 및 학생봉사자들이 만든 주먹밥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애들이 밥먹자'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먹밥을 국산쌀과 고기로 만들어 저탄소 운동과 생명사랑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 중부

논산 YWCA 김혜선 간사

●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논산Y는 5월 9일 논산 중앙초등학교 전교생 1,300여명을 대상으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중앙초 전교생에게 Y자원지도자들과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소고기 주먹밥과 음료를 나누어 주고, 학생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아침밥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상반기에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바른먹거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 YWCA 강은혜 부장

● 비폭력대화 교육

대전Y는 한국비폭력대화(NVC)센터와 공동주관으로 4월 7일, 14일, 21일 3회기 총 18시간에 걸쳐 비폭력대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24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이 교육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 다른 사람과의 질적인 소통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화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교육생들은 비폭력대화(NVC)모델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개인, 가족, 집단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대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 결혼이민여성 매장관리전문가 양성과정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는 4월 30일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 "유통매장관리전문가양성과정"을 개강하였다. 이 과정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며 결혼이민여성의 교육과 취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채용수요가 많은 소기업유동업체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개설되었다. 롯데마트 현장견학으로 유통에 대한 이해 시간을 마련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과정이 결혼이민여성들이 대전지역 유통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세종 YWCA 홍진영 간사

※ 조차원Y가 세종Y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평화운동가 교육

세종Y는 매주 토요일 Y-틴을 위한 평화운동가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 문제를 대하며 Y다운 평화운동가로 임하는 자세를 배우며, 영성교재 '새벽종소리'를 가지고 Y정신과 영성을 공부하고 있다. Y-틴이 평화세상을 위한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꿈꾼다.

청주 YWCA 정미향 간사

● 돌봄회원 역량강화프로그램



청주Y는 4월 23일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 '하자,웃자,품자'를 개강했다. 건강체조댄스교실(월), 신나는 노래교실(목) 운영으로 돌봄 회원들의 건강을 지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 (주)생명살림 올리 - 신제품 출시



청주Y 사회적기업 '올리'는 쌀로 만든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찹쌀과 팥으로 만들어 오븐에 구운 쫄쫄득득한 찹떡구이와 쌀과 단호박, 백년초, 녹차가루로 만든 삼색 쌀케이크세트다. (문의: 청주YWCA)

충주 YWCA 김애영 부장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수료식



충주Y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산모신생아도우미교육 수료식이 있었다. 총 20명이 총 60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였다. 충주Y는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동아리 모임과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에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서부

광주 YWCA 임서하 간사

● 광주YWCA 창립90주년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시민걷기대회



광주Y는 4월 28일 광주 천변로에서 광주YWCA 창립 90주년 기념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를 위한 시민걷기대회'를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열린 이날 행사에 약 천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생명살림과 평화, 나눔의 순례를 선포하는 폼보드 전달식이 있었다. 광주Y 최양님 회장이 연합회 차경애 회장에게 폼보드를 전달했고, 이는 5월에는 서울로, 7월에는 강릉으로 전달될 것이다. 한편, 이날 시민걷기와 함께 광주천 살리기를 위한 EM 흙공던지기를 하였으며, 참가비는 북한어린이를 위한 분유보내기 성금으로 쓰였다.

남원 YWCA 조윤희 팀장

● 북한어린이돕기 선헌식



남원Y는 5월 7일 북한어린이돕기 선헌식을 진행하였다. 북한어린이의 현실과 아픔이 담긴 영상과 분유전달사진을 보며, 함께 기도하고 나눔의 실천을 다짐하였다.

순천YWCA 김아라 간사

● 어린이날 행사 '생각하며 쓱쓱크는 어린이 오목왕'



순천Y는 5월 5일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생각하며 쓱쓱크는 어린이 오목왕' 부스를 운영하였다. 20명의 순천Y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함께, 총 500명이 참여하였으며, 많은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YWCA를 경험하였다.

여수 YWCA 이경진 간사

●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직업훈련 객실관리자 취업공개설명회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는 5월 10일 새일직업훈련 객실관리자 과정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공개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엠블호텔 외 4개 주요 호텔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업체 현황과 근로조건 등을 설명한 후 이력서를 접수 받는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하였다. 이날 서류코칭 및 동행면접을 통해 9명이 채용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생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익산 YWCA

● 이사·위원 연수



익산Y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충남 태안 안면도 자연휴양림에서 이사·위원 연수를 가졌다. 총 10명이 참석하여 한국YWCA 정책교육과 YWCA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익산Y가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Y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전주 YWCA 김은진 간사

● 건강한 청소년 동아리, 학교폭력 NO!

전주Y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6일 전주중앙교회 살림광장에서 청소년 500여명과 함께 '건강한 청소년 동아리, 학교폭력 NO!'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우수청소년 동아리팀 부스 운영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긍정적인 사례를 제시하였고, 열린 문화공간, 정보제공,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건전한 문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 동부

김해 YWCA 배정숙 실장

● EM환경교육가 양성과정 수료

김해Y는 5월 9일 EM환경교육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경상남도 지원으로 3월 28일 개강한 EM환경교육가 양성과정은 6주간의 과정으로 총 15명이 수료하였다. 수료생 중 8명이 EM동아리를 결성하여 실생활의 실천과 주변인들에게 전달을 통해 더욱 많은 EM활동가를 양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대구 YWCA 김세형 간사

● 대구YWCA와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들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



대구Y와 대구극동방송이 5월 12일 ~ 10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30분간 "행복한 여성들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다. 대구Y 최정숙 회장의 진행으로 이사, 위원, 회원, 자원봉사자, 대학생지도자, 실무자 그리고 대구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 2012 회원증모운동 "회원 증모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이다"

대구Y는 2012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두 달 간 회원증모운동을 펼친다. "회원증모는 숙제가 아닌 축제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회원증모대장모임, 실무모임, 단체회원기관방문, 회원증모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된다. 또한 4월 26일, 대구지역 목회자사모초청 오찬회를 통해 대구지역 교회에 대구Y를 소개하고, Y운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10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회원증모를 위해 애쓰는 대원들을 격려했다. 회원증모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회원증모 응원가와 회원증모 4행시 짓기 대회를 열었다. 이번 회원증모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Y를 통해 알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을 기대한다.

부산 YWCA 여진경 간사

● 탈핵 운동 정기 캠페인

부산Y는 탈핵운동의 일상화를 위해 월 2회 실무자들이 정기캠페인을 진행한다. 핵 없는 미래를 위한 탈핵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번 캠페인은 1분간 평화기도를 시작으로, 부산Y회관 주변에서 가두캠페인과 플래시몹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탈핵의 필요성과 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사천 YWCA 강선희 간사

●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YWCA 홍보부스 운영**
 사천Y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지역행사에서 YWCA 홍보 부스를 운영 하였다. 이동소비자상담실운영, 돌봄사업단, 지역아동센터 안내 및 홍보와 EM발효액 만들기 체험, 다문화 체험 등 다양한 체험으로 시민들에게 YWCA 활동들을 알리고 큰 호응을 얻었다.

안동 YWCA 강주영 간사

● **장애우와 함께 하는 소통프로그램**
 안동Y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안동진명학교(장애인학교)를 방문하여 함께 체육대회를 가졌다. 장애우 학생 90명과 안동Y-틴 청소년 20명과 자원봉사자 10명이 함께 공굴리기,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솜사탕 만들기, 전통 게임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날 체육대회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서로 도우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울산 YWCA 이지영 간사

● **울산Y와 함께하는 어린이 미술대회**
 울산Y는 5월 12일 농협하나로클럽(울산점)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여 환경살리기' 라는 주제로 어린이 미술대회를 열었다. 유·초등학생들 2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이용과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각자의 솜씨를 뽐낼 수 있었다.



진주 YWCA 최예진 간사

● **하이클래스 그린에너지 아파트 만들기**
 진주Y는 아파트와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펼친다. 아파트의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해 하이클래스 웰가아파트(진주시 이현동)와 함께 5월11일 에너지절약집중실천가구 50가구를 모집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50가구 선정과 함께 절전멀티탭을 나누어 전기에너지 절약에 대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hi 건강검진

미리받는 건강검진이 최고의 약입니다

건강의 청신호! 미리미리 받는 건강검진

<p>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p>	<p>암검진 국내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암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p>
<p>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생애전환기인 만 40세 안 여성에게 해당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와 건강위험 및 생활습관 평가를 의사 상담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p>	<p>영유아 건강검진 우리나라의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p>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SNS (blog, , , ,) ... 건강천사